



## ‘세계적 작곡가’ 홍성지 21일 국내 발표회 열어

광파르 매거진의 존 스토리가 “진정 빛을 발하는 음악”이라고 극찬한 작곡가 홍성지가 국내 무대에 선다.  
홍성지는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금호

아트홀에서 ‘홍성지 작곡발표회’를 연다.  
한양대 졸업후 영국의 왕립음악원에서 석사, 요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성지는 대담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지녀 잘 알려진 작곡가. 그녀의 작품은 하버드대의 프롬음악재단, 마타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위촉받았고 아시아현대음악제, 베니스뮤직페스티벌 등 주요 국제음악제에서 연주되고 있다. 이번 작곡발표

회에선 쿼르텟, 콘텟, 옥텟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곡들과 가야금 콘체르토, 전자음악이 연주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귀국 후 작곡한 작품들로 꾸밀 이번 발표회에서 특히 ‘블랙 애로우(Black Arrow)’, ‘쉐이즈 오브 레인드롭스(Shades of Raindrops)’ 등은 아시아 초연된다. ‘쉐이즈...’는 프롬음악재단의 위촉곡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